

키르기즈스탄에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선교전략 : 동아리 내 미술치료를 통한 집단상담을 중심으로

최진희

제1장: 서론 (Introduction)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나, 90% 이상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로서 직접적인 복음 전파가 매우 어렵다. 특히 최근 강화되는 종교법과 현지 정서는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 한계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대학생이라는 미래 지도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접근'이 절실했다.

* 이슬람권 선교의 한계 극복:

키르기즈스탄과 같은 이슬람 문화권은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분류되며, 직접적인 복음 전파에 법적·문화적 제약이 크다. 기존의 대결적·전통적 선교 모델보다는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상황화된 접근이 절실하다.

* 한류와 한국어 교육의 활용:

현재 키르기즈스탄 내 한류 열풍과 한국어 학습 수요는 매우 높다. 이를 매개로 한 대학 내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점을 형성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키르기즈국립대학교(KNU) 내 한국어 관련 동아리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미술치료 기반의 집단상담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기독교적 가치관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체계적인 선교 모델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대학 동아리 활동 내에서 실시되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간접적 선교 전략의 실효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문제 및 범위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교우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술치료를 병행한 집단상담이 학생들의 정서적 변화와 복음 수용성에 기여하는가?
연구 범위는 키르기즈국립대학교(KNU)의 한국어 관련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다.

제2장: 키르기즈스탄의 선교적 환경 분석

2.1. 키르기즈스탄의 상황과 선교 역사

키르기즈스탄은 독립 이후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영향력 확대와 정부의 종교 통제가 심화되고 있다. 2025년 개정 종교법 등 선교사들의 활동 범위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동아리'라는 합법적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 지리 및 종교: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로, 독립 이후 종교적 자유가 표면적으로는 보장되나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통제와 제약이 따른다.

* 한국 선교사의 활동:

한국 드라마, K-POP, 한국어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선교사들에게 강력한 '접촉점(Contact Point)'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관계를 형성하고 내면의 복음적 가치를 심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전문인 사역, NGO 활동, 교육 사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관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모델이 강조되고 있다.

2.2. 동아리 활동과 성경적 모델

* 동아리의 기능:

자발적 공동체로서 정서적 지지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대학 생활의 꽃'으로 기능한다.

*** 성경적 친구 모델:**

다윗과 요나단,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례를 통해 위기 속에서 신앙과 정체성을 지켜주는 소그룹 공동체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2.3. 미술치료와 집단상담

*** 미술치료의 유용성:**

언어적 표현이 서툰 학생들에게 비언어적 통로를 제공하여 무의식 속의 감정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 집단적 역동:**

집단 안에서 또래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서로의 결과물을 공유하며 공감과 수용을 경험한다.

제3장: 성경적 상담과 미술치료의 이론적 토대

3.1. 연구 방법론

질적 연구: 참여 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의 깊이를 확보하였다.

참여자: KNU 동아리 학생들과 지도교사(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3.1.1. 프로그램 구성 (성경적 주제의 접목)

활동 사례 1: '왕의 음식을 거부함':

다니엘의 결단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용기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하고 나눔을 가졌다.

활동 사례 2: '폴무불 속의 친구들':

위기 상황에서의 연대와 믿음을 시각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했다.

3.2. 성경적 상담의 정의와 원리

상담의 근거를 성경에 두며, 인간의 고통과 갈등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는 현지 학생들의 상처 입은 내면을 치유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다.

3.3. 미술치료의 선교적 유용성

말이 통하지 않거나 감정 표현에 소극적인 이슬람권 학생들에게 '그림'은 강력한 비언어적 도구이다. 무의식 속의 억압된 감정을 발산하게 하고, 성경적 메시지를 시각화하여 거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다.

3.4. 집단 역동과 소그룹 공동체

동아리 내 소그룹 활동은 초대 교회 공동체의 원형을 모델로 한다. 서로를 수용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제4장: 동아리 운영 및 프로그램 실제

4.1 동아리 구성 및 운영 전략

- *접근 단계: 한국어 교육, 영화 감상, 운동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제로 모집.
- *심화 단계: 관계가 형성된 후 미술치료 프로그램 도입.
- *내면화 단계: 성경적 가치관이 담긴 주제로 상담 진행.

4.2 미술치료 프로그램 사례 연구

*'나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하는 과정.

*'공동체 벽화' 제작: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가치를 깨닫고 협동심 고취.

*성경 인물 시각화:

다니엘의 용기, 다윗의 찬양 등을 미술로 표현하며 신앙적 태도 함양.

제5장: 연구 결과 및 분석 (질적 · 양적 분석)

5.1. 학생들의 정서적 변화

미술치료 전후를 비교했을 때, 참여 학생들의 자아존중감(Self-esteem)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우울감과 불안 수치가 감소했다. 특히 "그림을 통해 내 마음을 처음으로 표현해 보았다"는 고백이 다수 나타났다.

* 감정 표현의 확장:

학생들은 시각적 매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 공동체 의식 강화:

특히 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비동아리 그룹보다 상호작용과 협력 수준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 자존감 향상: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경험이 학생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5.2 사회적 관계의 회복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기피 현상이 완화되었으며, 지도교사(선교사)를 부모나 멘토로 인식하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관계 선교'의 핵심적 성과이다.

5.3 복음 수용성의 증대

직접적인 전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상담 과정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복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또한 선교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신뢰 자산 축적:

강압 없는 관계 형성을 통해 선교사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쌓였으며, 이는 복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 비종교적 매개의 힘:**

예술, 운동, 영화 등 비종교적 주제의 동아리는 종교적 거부감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접촉점이었다.

*** 연합 사역의 모델:**

교수 사역을 하는 선교사와 동아리 지도교사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입체적인 사역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제6장: 미래 지향적 선교 모델 제언

6.1 '플랫폼 선교'의 구축

동아리를 단순한 소모임이 아닌, 교육-상담-문화가 융합된 선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학생 주도의 동아리 구조를 강화하여 교사인 선교사가 떠난 뒤에도 자생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6.2 현지인 리더 양성

교사인 선교사 의존도를 낮추고, 변화된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자생적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6.3 다층적 전략

언어, 문화, 상담이 융합된 다각도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6.4 정책적 제언

현지법을 준수하면서도 창의적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NGO 혹은 대학 부속 기구와의 공식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2025년 시행되는 새 종교법 등 강화되는 제약 속에서 지혜롭고 안전한 사역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동아리 내 집단미술치료**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정서 치유와 간접 선교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 전도보다는 '관계를 통한 점진적 개방' 전략이 이슬람권 대학생 사역에 더 적합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본 연구는 키르기즈스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대학 동아리와 미술치료의 결합이 얼마나 강력한 선교적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였다. 이는 중앙아시아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이슬람권 국가들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모델이 될 수 있다.